

2026년 6월 8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증시 지지력과 회복력 테스트 구간

이번 주 코스피는 1)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급락 여파 속 2) 미국 5월 CPI 이후 시장 금리 향방, 3) 오라클 실적, 4) 스페이스 X 상장, 5)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6) 달러/원 환율 부담 등을 소화하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500~8,300pt).

주 초반에는 금요일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진, 주 중반에는 미국 5월 CPI, 오라클 실적, 스페이스 X 상장, 현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등 녹록지 않은 한 주가 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최근 조정을 통해 낮아진 코스피 선행 PER 부담(7.8배),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이익 모멘텀 등을 고려 시 월요일 이후에도 연쇄적인 폭락을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이를 감안 시, 주중 변동성 확대가 반복되더라도 투매 동참보다는 관망 및 기존 포지션 보유 전략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대안.



| 퀀트/자산배분 최재원
cjw5056@kiwoom.com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RA 유지윤
j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5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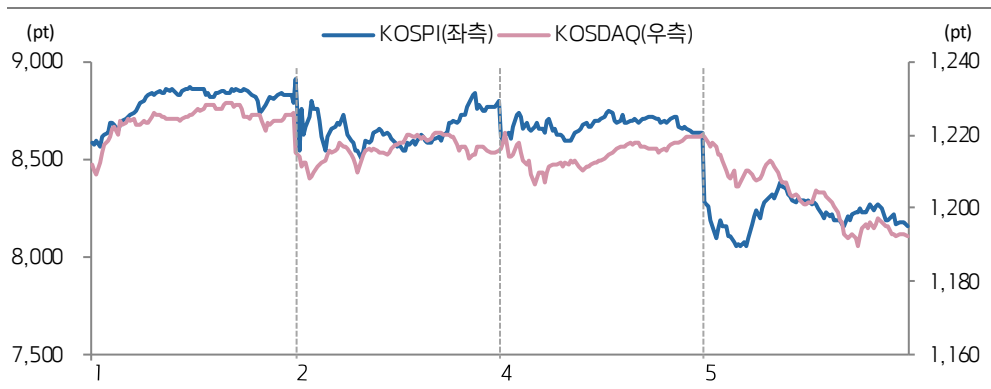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 기대감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주 초반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브로드컴발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급등, 외국인 매도세가 맞물리며 주 후반 급락 마감(KOSPI -3.72%, KOSDAQ -6.73%).

코스피는 주 초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 기대감과 5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 특히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5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371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9.4% 급증하며 수출 증가세 견인.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과 실적 모멘텀 강화 기대가 부각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관·개인 매수세 집중. 엔비디아 협력 기대가 반영된 AI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의 강세 역시 지수 상승 견인 요인으로 작용. 특히 6월 2일에는 장중 8,933pt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고, 종가 기준 처음으로 8,800선 안착. 주 후반 들어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하회하며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까지 겹치며 상승 탄력 약화. 이후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급등 우려가 더해지며 6월 5일 매도 사이드카 발동과 함께 투매 양상이 전개, 큰 폭 하락 마감. 코스닥은 반도체 대형주로의 자금 쏠림과 위험선호 심리 위축 속에 외국인·기관 매도세가 확대되며 약세 마감.

대외적으로는 브로드컴 실적 가이던스 실망과 미국 5월 고용지표 호조가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브로드컴을 비롯해 마이크론·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의 조정이 나타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큰 폭 하락했고, 미국 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 조정이 국내 증시로 전이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매도 압력 확대. 이어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고, 미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나스닥도 큰 폭 하락.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선에 근접하며 외국인 수급 부담이 가중됐고, 외국인의 연속 순매도 기조가 이어지며 증시 하방 압력 확대.

업종별로 보험(+8.39%), 유통(+4.61%), 통신(+2.82%), 금융(+2.16%), 오락/문화(-1.53%)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10.15%), 금속(-8.08%), 부동산(-6.9%), 운송/창고(-6.83%), 종이/목재(-6.13%)는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18조 5,555원)은 통신(-3,751억원), 제약(-844억원), 비금속(-5억원), 섬유/의류(+1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2조 5,327억원)은 전기/전자(+37,305억원), 제조(+28,822억원), KOSPI(+25,327억원), IT 서비스(+2,123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6월 8일	월	일본	GDP 성장률 (QoQ, 최종치)	1 분기	0.3%	0.3%(0.5%)
		EU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6 월	-	-16.4
	행사	애플 WWDC 2026 (~12 일)				
6월 9일	화	한국	경제성장률 (QoQ, 최종치)	1 분기	-	-0.2%(1.7%)
		독일	산업생산 (MoM)	4 월	-	-0.7%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5 월	-	95.9
			무역수지	4 월	-\$55.0b	-\$60.30b
		중국	무역수지	5 월	\$91.00b	\$84.80b
6월 10일	수	중국	CPI (YoY)	5 월	1.3%	1.2%
			PPI (YoY)	5 월	3.9%	2.8%
		미국	CPI (MoM)	5 월	0.5%	0.6%
			CPI (YoY)	5 월	4.2%	3.8%
			근원 CPI (MoM)	5 월	-0.3%	0.4%
			근원 CPI (YoY)	5 월	2.9%	2.8%
6월 11일	목	미국	PPI (MoM)	5 월	0.7%	1.4%
			PPI (YoY)	5 월	-	6.0%
			근원 PPI (MoM)	5 월	0.5%	1.0%
			근원 PPI (YoY)	5 월	-	5.2%
		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6 월	2.40%	2.15%
		행사	FIFA 북미 월드컵 개최			
		실적	오라클			
		파생	한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6월 12일	금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6 월	46.0	44.8
		증시	스페이스 X 상장예정일			
		지수	코스피 200·코스닥 150 정기변경			
		실적	어도비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급락 여파 속 2) 미국 5월 CPI 이후 시장 금리 향방, 3) 오라클 실적, 4) 스페이스 X 상장, 5)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6) 달러/원 환율 부담 등을 소화하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500~8,300pt).

5일(금) 미국 증시는 브로드컴(-7.9%)의 매출 가이드스 컨센 하회 여진 속 5월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불안 재점화, 메타(-5.5%)의 AI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루머 등으로 나스닥 중심의 급락세를 연출(다우 -1.4%, S&P500 -4.2%, 나스닥 -4.2%).

미국의 5월 실업률(4.3% vs 컨센 4.3%)과 시간당 평균임금(MoM 0.3% vs 컨센 0.3%)은 예상에 부합했으나, 신규고용(17.2만건 vs 컨센 8.5만건) 서프라이즈가 증시 악재로 인식됐던 상황. 고용 발표 이후 미국 10년물 금리가 4.5%대를 다시 상향 돌파했으며, 달러 인덱스도 100pt선에 재진입하는 등 매크로 불안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기 때문.

더욱이, 마이크론(-13.2%), 샌디스크(-11.4%) 등 미국 대장주 폭락이 시장 참여자들의 상실감을 더 키웠던 실정(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2%). 이는 코스피 랠리 주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보유자들로 하여금, 월요일 장 시작부터 투매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

하지만 미국 반도체주 폭락은 메모리 업사이클 피크아웃, AI 수요 둔화 등 업황 악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이보다는 그간 이들 업종의 추가 폭등 및 쏠림 현상 심화에 따른 피로감 및 수급 부담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 고용 서프라이즈발 미국 시장금리 상승이 과열 해소를 위한 조정의 명분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임.

실제로 5월 이후 6월 4일까지 마이크론(+92.5%), 샌디스크(+60.5%)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9.6% 상승하면서, S&P500(+5.2%), 나스닥(+7.8%)의 성과를 대폭 상회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임. 같은 맥락에서 코스피(+30.9%)의 동기간 상승률 자체도 역대급이었지만, 삼성전자(+59.4%), SK하이닉스(+78.6%) 등 반도체(+66.3%)의 폭등이 더 강했던 점도 마찬가지.

일단 지난 금요일 국내외 반도체주의 연쇄적인 급락이 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는 함. 따라서, 주중 매크로, 실적, 수급 등 주요 이벤트를 통해 냉각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반전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

매크로상으로는 10일(수) 예정된 미국의 5월 CPI가 메인 이벤트. 현재 헤드라인과 코어 CPI 컨센서는 각각 4.2%(YoY vs 4월 3.8%), 2.9%(YoY vs 2.8%)로 전달 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형성되는 등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진 상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5월 고용 호조발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우려라는 악재에 노출된 점을 감안 시, 컨센에 부합하게만 나오더라도 “시장 금리 상승 -> 달러 강세 -> 달러/원 환율 급등”라는 부정적인 경로의 확산이 억제될 수 있다고 판단.

11일(목) 오라클의 실적은 미국 빅테크 및 국내 반도체주의 추가 향방에 영향을 주는 재료. 최근 AI주의 추가 불안을 유발했던 브로드컴의 경우, 직전 연속적인 랠리 속에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측면이 컸음. 반면, 오라클은 이미 지난 연말 이후 빈번하게 부각됐던 사모대출시장 불안 국면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 따라서, 이번 오라클 실적은 AI CAPEX와 연관된 RPO(잔여수행의무) 잔고 증가 여부, 현금흐름 개선

2026년 6월 8일

KIWOOM WEEKLY

여부 등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선제적으로 낮아진 기대치를 감안 시 큰 폭의 쇼크가 나지 않는 한 증시 중립적인 결과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

수급 측면에서는 스페이스 X 상장,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간과할 수 없는 변수. 역사상 최대 메가 IPO인 스페이스 X의 상장 직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1.75조 달러~ 2조 달러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중론. 유통주식수가 5%에 불과하기에 이번 스페이스X의 공모금액 약 750억 달러로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약 75조 달러)에 비해 그리 부담스러운 규모가 아니기는 함.

다만, 일시적으로는 약 2조 달러 내외의 초대형주가 증시에 입성한다는 상징성과 단기 수급 부담 (다른 주식을 팔고 스페이스 X를 사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 또 스페이스 X 상장 전(12일)에 국내 증시에서는 현선물옵션 동시 만기일(11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수급상 일시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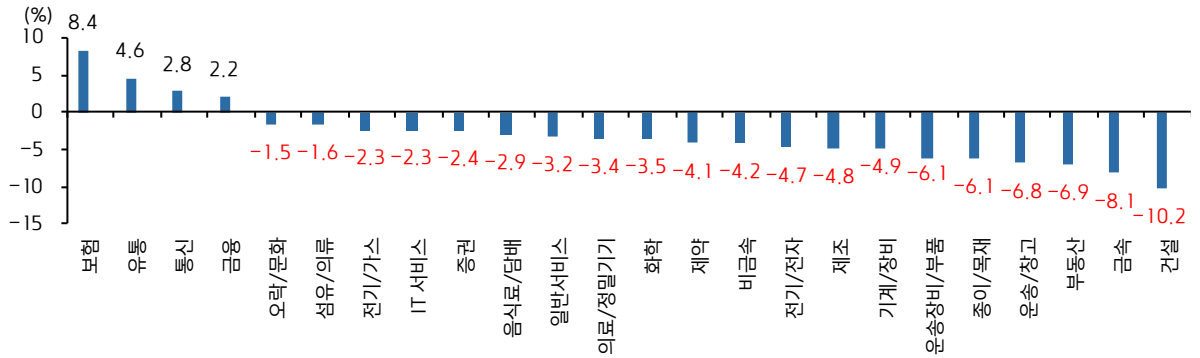
이처럼 주 초반에는 금요일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진, 주 중반에는 미국 5월 CPI, 오라클 실적, 스페이스 X 상장, 현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한 주가 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최근 조정을 통해 낮아진 코스피 선행 PER 부담(7.8배),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이익 모멘텀 등을 고려 시 월요일 이후에도 연쇄적인 폭락을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이를 감안 시, 주중 변동성 확대가 반복되더라도 투매 동참보다는 관망 및 기존 포지션 보유 전략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대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8,160.59	-5.5	-3.7	17.6	93.7
대형주	8,999.39	-5.8	-3.7	21.3	105.6
중형주	4,454.09	-2.5	-4.2	-13.6	19.7
소형주	2,439.45	-1.4	-5.7	-19.5	-3.1
코스피 200	1,297.02	-6.0	-3.4	23.6	114.0
코스닥	1,002.44	-4.5	-6.7	-17.4	8.3
대형주	2,543.99	-5.2	-5.7	-12.0	13.0
중형주	1,007.36	-4.3	-7.3	-22.1	12.0
소형주	2,633.37	-2.6	-7.6	-21.9	2.3
코스닥 150	1,767.92	-5.3	-6.1	-13.1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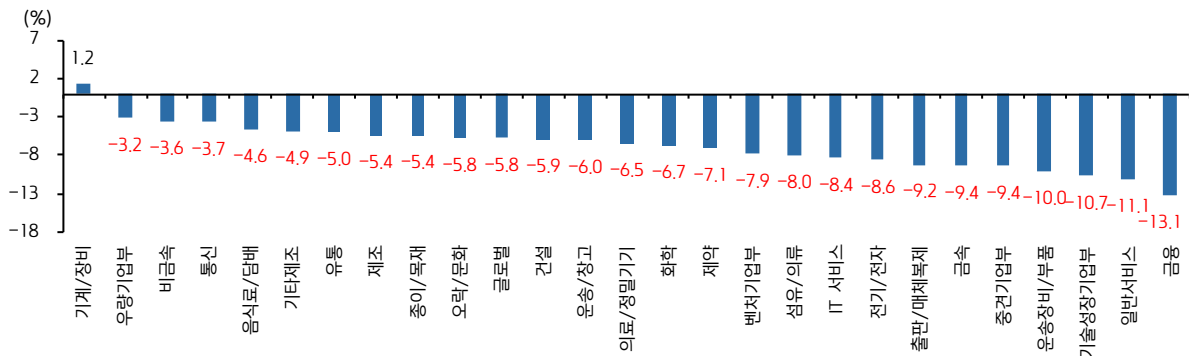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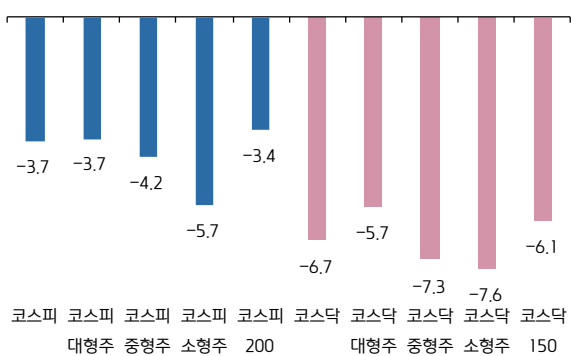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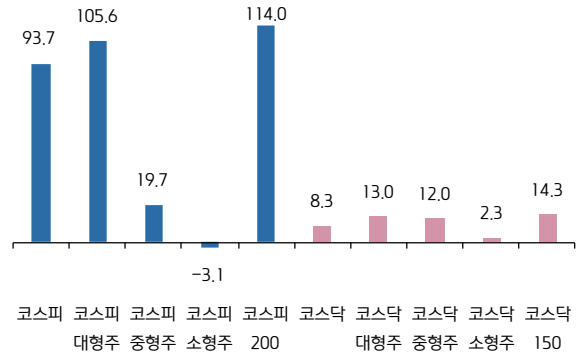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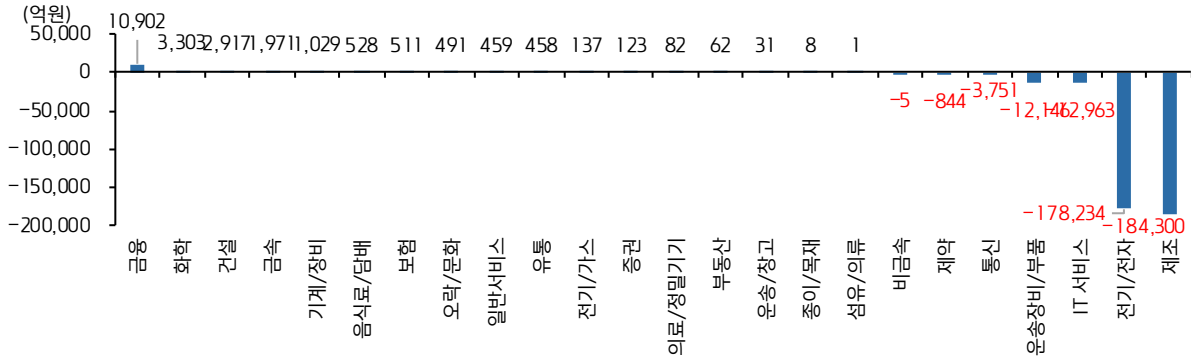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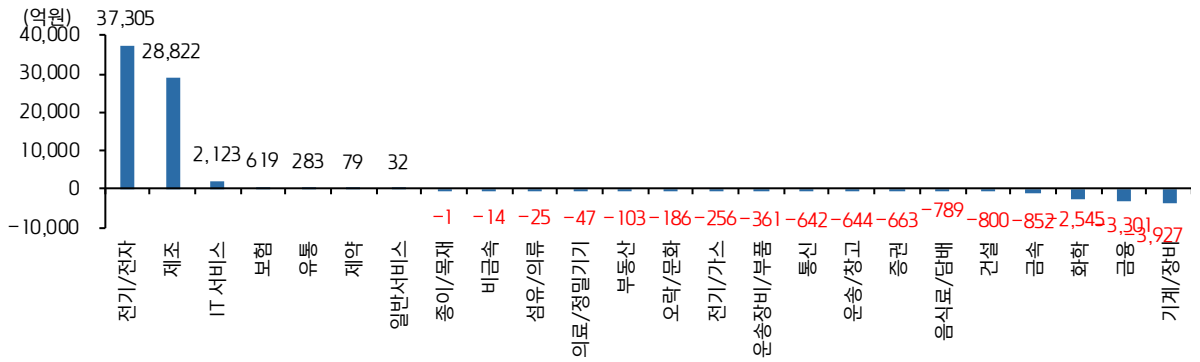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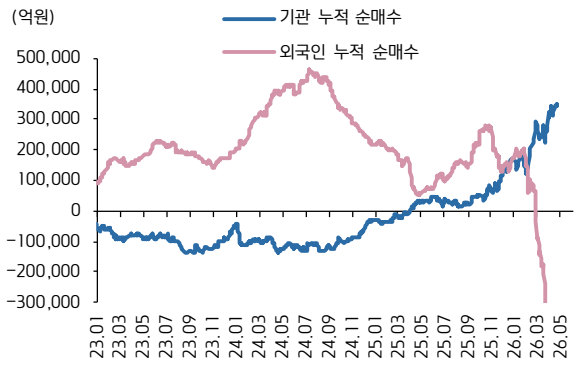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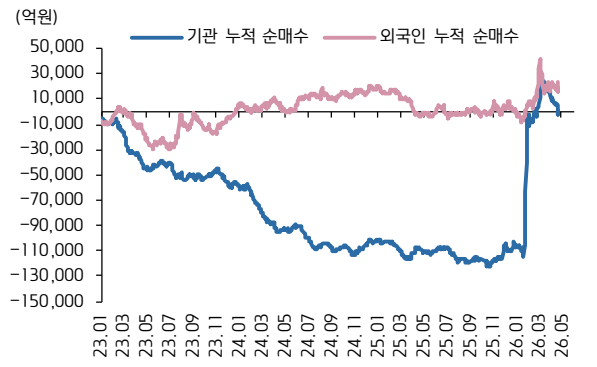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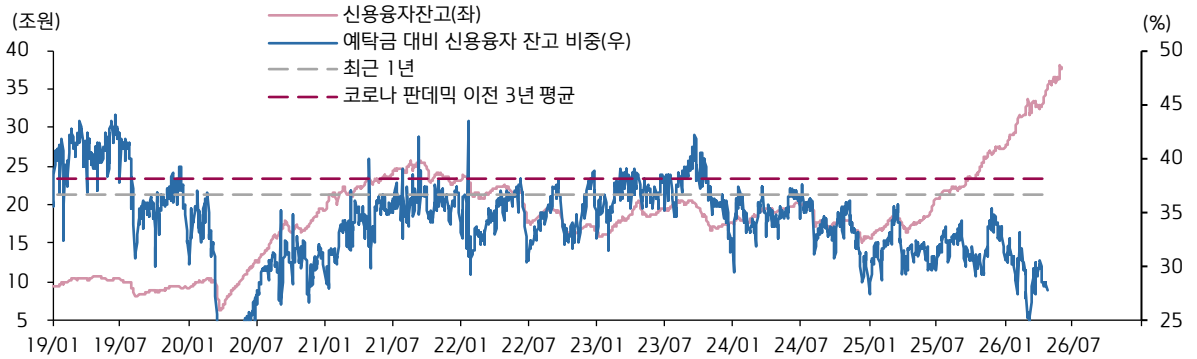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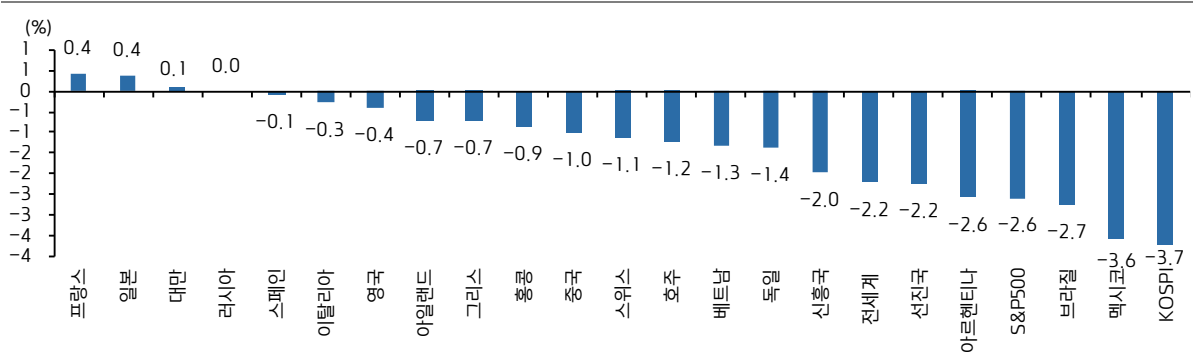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용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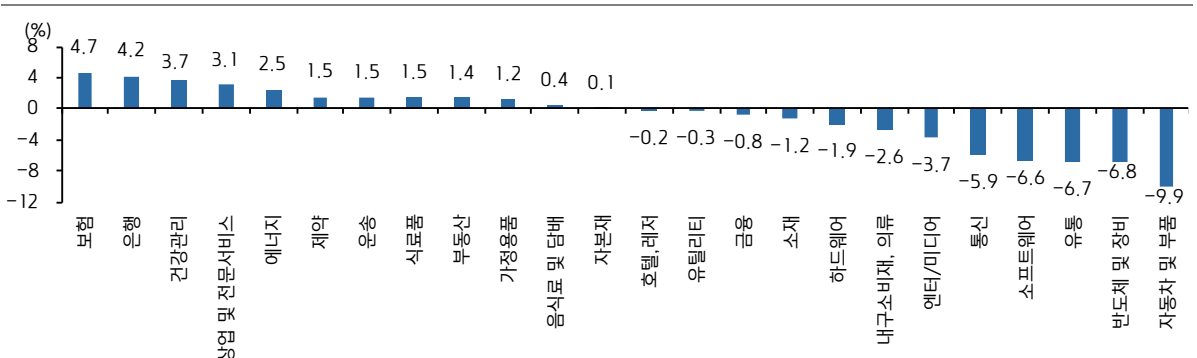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